

성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 간의 관계

김예진^{1*}

¹삼육보건대학교 간호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and Safer Sexual Behavior in the 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Ye-Jean Kim^{1*}

¹Sahmyook Health University Nursi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중 성경험이 있는 3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주제가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자료수집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한 성행위는 주관적 규범($r=.235, p<.001$), 지각된 행위통제($r=.286,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r=.45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에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and safer sexual behavior in 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388 students of university in Seoul. Considering the extremely private and sensitive topic of this research,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through online and mobile media from April 1 to 14, 201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s. As a results, safer sexual behavior had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the of this research are us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sexual health, such as sex education programs or sex counseling programs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 : Safer sexual behavior,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실제적인 성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성 경험은 대학 입학 전에 비해 입학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대학생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남학생의 75.9%, 여학생의 30.7%가 성경험이 있으며, 첫

성경험 연령은 남학생은 11세, 여학생은 16세부터 시작하여 20-21세에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첫 성관계 시 피임을 한 경우는 24.9%로 남녀 모두 약 4명 중 3명은 준비되지 않은 채 첫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 밖에 대학생의 성경험의 실태는 국내의 경우 허태균 등[2]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 학생의 55.2%(남성: 75.2%, 여성: 36%), 강효윤[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며 삼육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Ye-Jean Kim(Sahmyook Health Univ.)

Tel: +82-10-5674-7111 email: yejean73@shu.ac.kr

Received November 28, 2013 Revised (1st December 23, 2013, 2nd December 27, 2013) Accepted January 9, 2014

50.5%, 여학생 19.3%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국외의 경우 조사 대상 학생의 86.7%와 84%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4, 5]. 뿐만 아니라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48%가 지난 1년간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5, 6].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 대학생 모두 성 개방 문화에 노출되면서 성 경험의 빈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피임 등 성 지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전 성관계 증가와 함께 늘어난 성병, AIDS, 미혼모 및 낙태, 더 나아가 데이트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발달과 동시에 과거보다 자유로워진 성문화로 인해 그 이면에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7,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성(性)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의학적인 분야가 아니면 연구나 교육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인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2]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은 간과한 채 대학생의 성 경험은 올바르지 않으니 성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실제적인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채 성경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일부는 성경험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성경험 시 보다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성병 및 원치 않는 임신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실천이 요구됨에도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성별의 차이, 성 경험 실태, 콘돔 사용 여부와 의도, 안전한 성행위 예측인자 조사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들도 안전한 성행위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행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안전한 성행위가 콘돔 사용 여부나 콘돔 사용 의도에만 집중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안전한 성행위는 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성경험 및 약물 사용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안하기, 성적 파트너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9]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과 관련된 대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의도를 조사함으로써 다른 이론 모형에 비하여 측정 개념이 적고 복잡한 사회 행위를 잘 예측하므로 의도 및 행위를 설명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자주 적용되고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건강관련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적합한 이론으로써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 행위 의도와 행위가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10, 11]. 또한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변화와 태도 변화가 적용되는 보건 의료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련된 행태를 이해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은 건강관련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2], 병원감염관리 수행행위, 손위생 행위, 재활운동행위, 절주행위, 예방접종 행위, 금연행위, 콘돔사용행위 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으로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표적 집단은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한 가운데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가운데 만 18세 이상의 미혼이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가보고형 설문으로써 도구사용과 관련하여 도구의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 및 도구의 원저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2.2.1 안전한 성행위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성 전파성 감염 및 HI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Dilorio 등[13]에 의해 청소년과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SSBQ : Safer Sexual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열거된 성관련 행위의 실천정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언제나 한다(4점)까지의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한 성행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점수는 합산되며 점수범위는 22점에서 8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자주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로 나타났다.

2.2.2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1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내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8쌍의 형용사 짝에 대하여 +3점에서 -3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4로 나타났다.

2.2.3 주관적 규범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1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순응 동기 1문항,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주변사람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규범적 신념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2.2.4 지각된 행위통제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1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당신은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등 7점 척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쉽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2.2.5 안전한 성행위 의도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1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를 가진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계획서와 연구 설문지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사를 통과(승인번호: IRB 2012-1036)한 후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제가 성(性)과 관련되어 성경험 등의 매우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이 요구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서면을 통한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만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PC를 이용한 온라인 응답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응답 방법 중 대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공개적으로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성경험 등의 정보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였으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내용을 제외하고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 38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3)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

별은 남성이 172명, 여성은 216명 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3.1세로 24세 이하가 287명, 25세 이상은 101명이었다.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65명, 학년은 4학년 143명, 학기 중 거주형태는 가족과 거주가 2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음’이 237명, 첫 성교 경험 연령은 20-24세가 232명으로 확인되었다. 본인 또는 파트너의 임신 경험과 유산 경험은 있는 경우가 각각 19명, 14명,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은 있는 경우가 43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88)

Characteristics	n	%
Gender		
Man	172	44.3
Woman	216	55.7
Age(years)		
≤24	287	74.0
≥25	101	26.0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165	42.5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113	29.1
Culture & Arts	44	11.3
Science & Technology	66	17.0
Grade		
Freshman	30	7.7
Sophomore	73	18.8
Junior	142	36.6
Senior	143	36.9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288	74.2
Boarding/ Self-boarding	57	14.7
Dormitory	37	9.5
Other	6	1.5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114	29.4
Present only	34	8.8
both past & present	237	61.1
No	3	.8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No	345	88.9
Yes	43	11.1
Age of sexual debut(years)		
≤19	143	36.9
20-24	232	59.8
≥ 25	13	3.4
Experience of Pregnancy		
Np	369	95.1
Yes	19	4.9
Experience of Abortion		
No	374	96.4
Yes	14	3.6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는 평균 60.27점(±7.92), 태도는 평균 16.89점(±6.34)으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은 평균 3.71점(±2.50), 지각된 행위통제는 평균 6.69점(±4.04),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평균 7.09점(±2.56)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Possible score	Mean±SD
Attitude	-24~24	16.89±6.34
Subjective Norm	-9~9	3.71±2.5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2~12	6.69±4.04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9~9	7.09±2.56
Safer Sexual Behavior	22~88	60.27±7.9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는 연령에 따라서 24세 이하보다 25세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2.059$, $p<.05$),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omparison of Attitude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Gender		
Man	17.50±5.77	1.735
Woman	16.40±6.74	
Age(years)		
≤24	16.52±6.52	-2.059*
≥25	17.93±5.70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17.22±6.26	1.176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16.57±6.38	
Culture & Arts	15.50±7.82	
Science & Technology	17.53±5.29	
Grade		
Freshman	15.77±5.99	.759
Sophomore	17.71±6.28	

Junior	16.87±6.04	
Senior	16.71±6.73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16.72±6.47	1.712
Boarding/ Self-boarding	16.77±5.92	
Dormitory	18.84±4.90	
Other	13.83±10.21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15.96±6.99	1.878
Present only	18.50±5.22	
both past & present	17.14±6.10	
No	14.00±8.00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17.21±6.30	-.354
No	16.85±6.35	
Experience of Pregnancy		
Yes	15.26±7.53	1.145
No	16.97±6.27	
Experience of Abortion		
Yes	14.36±8.30	1.523
No	16.98±6.25	
Age of sexual debut(years)		
≤19	17.14±6.00	.743
20-24	16.84±6.45	
≥25	14.92±8.04	

*p<.05, **p<.01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규범의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3.286, p<.01$),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6.746, p<.001$).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Comparison of Subjective Norm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 Scheffe
Gender		
Man	3.24±2.76	-3.286**
Woman	4.09±2.20	
Age(years)		
≤24	3.81±2.41	1.290
≥25	3.44±2.74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3.73±2.39	.347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3.64±2.39	

Culture & Arts	3.48±2.93	
Science & Technology	3.94±2.67	
Grade		
Freshman	4.70±2.81	6.746***
Sophomore	4.32±2.19	(a,b>c)
Junior	3.05±2.57	
Senior	3.85±2.36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3.70±2.53	.524
Boarding/ Self-boarding	3.51±2.35	
Dormitory	4.14±2.49	
Other	3.33±2.73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3.64±2.45	.776
Present only	3.15±2.75	
both past & present	3.83±2.49	
No	3.67±2.52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3.65±2.19	.167
No	3.72±2.54	
Experience of Pregnancy		
Yes	2.79±2.80	1.652
No	3.76±2.48	
Experience of Abortion		
Yes	2.93±2.73	1.194
No	3.74±2.49	
Age of sexual debut(years)		
≤19	3.46±2.69	1.357
20-24	3.83±2.34	
≥25	4.31±2.98	

*p<.05, **p<.01, ***p<.001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각된 행위통제의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343, p<.05$),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70, p<.05$).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Comparison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Gender		
Man	7.22±3.88	2.343*
Woman	6.26±4.12	
Age(years)		
≤24	6.48±4.19	-1.796
≥25	7.26±3.54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6.45±4.40	2.296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6.21±3.78	
Culture & Arts	7.41±3.47	
Science & Technology	7.59±3.73	
Grade		
Freshman	8.27±3.13	1.829
Sophomore	6.58±4.25	
Junior	6.71±4.05	
Senior	6.38±4.05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6.65±3.96	.396
Boarding/ Self-boarding	6.46±4.52	
Dormitory	7.08±3.79	
Other	8.00±5.10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6.10±4.43	1.683
Present only	6.12±4.06	
both past & present	7.04±3.81	
No	7.33±4.73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5.49±4.39	2.070*
No	6.83±3.97	
Experience of Pregnancy		
Yes	5.58±4.46	1.225
No	6.74±4.01	
Experience of Abortion		
Yes	4.71±4.51	1.866
No	6.76±4.01	
Age of sexual debut(years)		
≤19	6.70±3.92	.347
20-24	6.73±4.10	
≥25	5.77±4.48	

*p<.05

3.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4.494, p<.001$), 24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962, p<.01$). 다른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Comparison of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Gender		
Man	6.42±2.94	-4.494***

Woman	7.62±2.07	
Age(years)		
≤24	7.34±2.34	2.962**
≥25	6.37±3.00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7.30±2.50	1.478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6.73±2.92	
Culture & Arts	6.82±2.64	
Science & Technology	7.35±1.88	
Grade		
Freshman	7.60±2.39	.663
Sophomore	7.03±2.82	
Junior	6.92±2.72	
Senior	7.17±2.29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7.07±2.67	.122
Boarding/ Self-boarding	7.11±2.20	
Dormitory	7.27±2.19	
Other	6.67±3.01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6.88±2.68	.584
Present only	7.12±2.27	
both past & present	7.20±2.56	
No	6.00±1.73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7.09±2.15	-.015
No	7.09±2.61	
Experience of Pregnancy		
Yes	6.42±2.93	1.163
No	7.12±2.54	
Experience of Abortion		
Yes	5.93±3.15	1.728
No	7.13±2.53	
Age of sexual debut(years)		
≤19	6.71±2.97	2.459
20-24	7.31±2.30	
≥25	7.15±1.82	

*p<.05, **p<.01, ***p<.001

3.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안전한 성행위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5.267, p<.001$), 24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3.100, p<.001$),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19세 이하인 집단이 20-24세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8.920, P<.001$). 또한 본인 또는 파트너의 임신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안전한 성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T=3.188, p<.01$), 본인 또는 파트너의 유산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226, p<.01$).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7] Comparison of Safer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p / Scheffe
Gender			
Man	57.97±7.38	-5.267** *	<.001
Woman	62.09±7.87		
Age(years)			
≤24	61.00±7.96	3.100	.002
≥25	58.19±7.45		
Major			
Humanities & Social Sci	59.79±7.90	.911	.436
Health Sci & Social Welfare	60.21±7.75		
Culture& Arts	60.05±7.45		
Science & Technolgy	61.68±8.53		
Grade			
Freshman	62.60±8.76	1.174	.319
Sophomore	60.75±7.86		
Junior	59.94±8.01		
Senior	59.85±7.65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60.48±7.91	1.374	.250
Boarding/ Self-boarding	59.23±8.12		
Dormitory	59.38±7.03		
Other	65.33±10.65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60.25±7.99	.885	.449
Present only	62.21±8.61		
both past & present	59.97±7.69		
No	62.67±15.53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60.86±7.70	-.522	.602
No	60.19±7.95		
Experience of Pregnancy			
Yes	54.68±6.68	3.188**	.002
No	60.55±7.88		
Experience of Abortion			
Yes	53.64±7.41	3.226**	.001
No	60.51±7.84		
Age of sexual debut(years)			
≤19	58.34±7.40	8.920***	<.001 / a<b
20-24	61.62±8.09		
≥ 25	57.23±5.10		

** $p<.01$, *** $p<.001$

3.8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주관적 규범은 안전한 성행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r=.235, p<.001$),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를 더 자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도 안전한 성행위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286, p<.001$),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를 더 자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도 안전한 성행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r=.455,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r=.067, p>.05$)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A	SN	PBC	I
SN	.225***			
PBC	.374***	.275***		
I	.237***	.325***	.394***	
SSB	.067	.235***	.286***	.455***

*** $p<.001$

A: Attitude,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 Intention

SSB: Safer Sexual Behavior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대해 파악하고,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안전한 성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의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실천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점수는 총 88점 만점에 평균 60.27점(±7.92)으로 Chamber[9]가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한 성행위를 측정할 결과인 평균 73.73점(±9.64)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로 본 연구의 경우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Sunmola[15]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45%가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반면 남학생은 30%만이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어 성행위에 대해서 시작 시기가 빠르고 진행단계도 높으며, 여학생은 55%가 절대로 위험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남학생은 33%만이 위험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들[16,17]처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한 성행위는 콘돔 사용 여부처럼 하나의 행위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위들이므로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및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안전한 성행위를 다양한 성관련 행위들(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성경험 및 약물사용 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음주나 약물 아나하기, 성적 파트너의 수 제한하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지 않고 대부분 콘돔 사용 여부만을 주된 지표로 측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정확하게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한 성행위와 주관적 규범의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크면 더 자주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1, 18]에서 주관적 규범과 동료 규범이 미래의 콘돔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Cha 등[19]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동료 규범이 콘돔 사용 의도를 예측하는 인자였던 것과는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성행위와 지각된 행위통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대상자가 쉽고 인식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14]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성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행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김윤경[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관련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의도의 중요성을 확인 한 것이고, 계획된 행위이론에서의 의도와 행위와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안전한 성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Asare & Sharma[20]의 연구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가 콘돔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나 이신화[14]의 연구에서 성행위 태도는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형변인으로 전제되어 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태도가 관련 행위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18]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4세 이하보다 25세 이상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령이 위험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성행위를 한다는 Langer 등[21]의 연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경험률도 높게 나타나고 더 자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22, 23]과는 일관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24]에서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지속되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아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된 성적 파트너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만남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아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주관적 규범은 성별과 학년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 2학년이 3학년 보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주관적 규범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전(婚前)의 성적 행위가 절제 또는 억제되길 기대하면서 동시에 성의 생식기능과 쾌락기능을 분리하고 순결과 정절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남녀에게 각기 다른 성윤리를 적용하고 강요하는 이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22] 여성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권고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더 의식하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25]. 또한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일상의 모든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과 달리 신입생이나 저학년은 여전히 부모님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서도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남성과 부정적 성경험(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이 없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에게는 성적 허용성에 대해 개방적인 기준

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성적 허용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 이중기준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26]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성 역할과 가부장적 성규범에 의해 성적(性的)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은 남성의 의견에 따르는 부분이 많거나 자신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26] 성관계 시 안전한 성행위 역시 남성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강조하여 성적 자율성이 획득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27]. 또한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부정적 성경험을 당한 대상자들보다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성관계 시 안전한 성행위도 스스로의 조절과 통제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행위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지에 대한 의지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은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유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따라 겪게 될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을 여성들이 더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성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특성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임신과 유산 경험이 없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높았으며,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23,28]에서 남학생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더 많이 하고,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황신우 등[24]의 연구에서 남성들도 파트너가 임신을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파트너의 임신을 예방하고자 피임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임신과 유산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경우는 평소에도 피임을 위해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 20-24세인 경우보다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21]와 일관된 결과로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관계나 피임에 대한 뚜렷한 의지 없이 충동적 욕구에 의해 잘 알지 못하는 파트너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24] 이와 같은 결과는 Jadack 등[2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는 19세 이하인 경우 보다 안전한 성행위 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성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16, 21]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안전한 성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간호 교육 및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성(性)을 더 금기시 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2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성은 성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식 전환교육이 제공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기준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익명성과 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설문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로그램은 개인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공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성경험 등 성(性)과 관련된 설문의 응답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학생의 연령을 24세 이하와 25세 이상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따름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를 축소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처럼 콘돔 사용만이 아닌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Lee, H. K., "Predictors of Condom Use Intentions according to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in 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6(2), 194-203, 2010.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2.194>
- [2] Hur, T. K., & Cho, J. E., "Condom negotiation strateg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teractive perspective of Sexual-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3(1), 43-61, 2007.
- [3] Kang H. 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onghoe University, 2007.
- [4] Opt, S. K., & Loffredo, D. A., "College students and HIV/AIDS: more insights on Knowledge, testing and exual practices", *Journal of Psychology*, 138(5), 389-402, 2004.
DOI: <http://dx.doi.org/10.3200/JRLP.138.5.389-403>
- [5] Poulson, R. L., Eppler, M. A., Satterwhite, T. N., Wuensch, K. L., & Bass, L. A., "Alcohol consumption, strength of religious beliefs,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y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6(5), 227, 1998.
DOI: <http://dx.doi.org/10.1080/07448489809600227>
- [6] Prince, A., & Bernard, A., "Sexual behaviors and safer sex practices of college students on a commuter campus", *Journal og American College Health*, 47(1), 11, 1998.
DOI: <http://dx.doi.org/10.1080/07448489809595614>
- [7] Woo, G. H.,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1.
- [8] Choi, J. H., Kim, K. E., & Shin, M. A.,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Use among College Students: Function of Gender, Age, and Residenc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3), 511-522, 2010.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0.19.3.511>
- [9] Chambers, M. K., "A Conceptual Model of Sexual Health Practices of Older Adolescent College Women", Unpublished Ph.D., The University of Texas, 2003.
- [10] Kim, Y. K., "Model Development on Sobriety in Male Workers` Drinking Based on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 [11] Jung, S. Y., "The Structural Model for Hand Hygiene of Infection Prevention Activities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1.
- [12] Kim, S. M., "Influential Factors on Rehabilitation Exercise in Elderly Limited Activities of Daily-Living :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0.
- [13] Dilorio, C., Parsons, M., Lehr, S., Adame, D., & Carlone, J., "Measurement of Safe Sex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Nursing Research*, 41(4), 203-208, 1992.
- [14] Lee, S. H., "Undergraduate Students' Sexual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4.
- [15] Sunmola, A. M., "Evaluation the sexual behavior, barriers to condom use, and its actual use by university students in Nigeria", *AIDS Care*, 17(4), 457-465, 2005.
DOI: <http://dx.doi.org/10.1080/09540120412331319732>
- [16] Park, J. H., & Kim, T. H., "A Stud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focused on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with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1), 75-101, 2005.
- [17] Lance, L., "HIV/AIDS perceptions and knowledge heterosexual college students within the context of sexual activity suggestions for the future", *College Student Journal*, 35(3), 401-409, 2001.
- [18] Hur. T. K., Han, M., & Kim, Y. S., "Gender Differences of Risk-taking Decisions in Sexual Behaviors: Condom Use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9(3), 69-87, 2004.
- [19] Cha, E. S., Kim, K. H., & Patrick, T. E., " Predictors of Intention to Practice Safer Sex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 641-651, 2008.
DOI: <http://dx.doi.org/10.1007/s10508-007-9187-y>
- [20] Asare, M., & Sharma, M.,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safer sexual behavior by Ghanaian immigrants in a large midwestern U.S. city", *International Quarterly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30(4), 321-335, 2010.
DOI: <http://dx.doi.org/10.2190/IQ.30.4.d>
- [21] Langer, L. M., Warheit, G. J., & Mcdonald, L. P.,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risky sexual practices

- among multi-racial/ethnic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9(2), 133-144, 2001.
DOI: <http://dx.doi.org/10.2224/sbp.2001.29.2.133>
- [22] Kim, S. J., “Modeling of Pricess of Korean Student’s Premarital Sexual Attitudes: Focused on the Girl Students at Catholic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0, 179-204, 2012.
- [23] Boone, T. L., & Lefkovitz, E. F., “Safer sex and health belief model: considering the contributions of peer norms and socialization factors”,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6(1), 51-68, 2004.
DOI: http://dx.doi.org/10.1300/J056v16n01_04
- [24] Hwang, S. W., & Chung, C. W., “Contraception Behaviors in Unmarried Men and Women: A Descriptive Qualitative Approach”,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9(2), 71-82, 2012.
- [25] Park, J. H., “Study of the Effect on sexual Behavior among Couples by Communication Characteristic Between Parents- late Adolescent Childen, Sexual Attitude, and Sexual Communi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4.
- [26] Kim, Y. 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1.
- [27] Choi, M. S., & Ha, N. 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4), 318-330, 2004.
- [28] Jadack, R. A., Hyde, J. S., & Keller, M. L., “Gender and knowledge about HIV, risky sexual behavior, and safer sex practic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4), 313-324, 1995.
DOI: <http://dx.doi.org/10.1002/nur.4770180405>

김 예 진(Kim-Ye Jean)

[정회원]



- 1999년 8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PBL